

# 21 → 19세...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 확대

## 2월 한달간 신청자 모집 연20만원 체크카드 제공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자를 기존 만 21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2월 한달간 신청자를 모집한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2월1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28세 청년(1995년~2004년 출생자)이다.  
단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대상자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배우처 대상자는 제외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

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하고 차액 9만 원만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월1~28일 한 달간이며 광주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자격요건 등 확인을 거쳐 4월 초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년도 선정자는 기존 발급받은 카드에 자동으로 포인트 충전되며 올해 신규 선정자는 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크카드는 문화활동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공연 관람, 학원 수강, 여행, 체육시설 이용 등 도내에 지정된 가맹점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청년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인구 유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 온라인으로 시민의견 듣는다 여수시, e-시민소통광장 운영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 시민참여 소통창구를 온라인까지 넓힌다.  
30일 여수시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에게 묻고 답하는 소통채널인 'e-시민소통광장'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시민소통광장'은 시민제안과 여수시 제안 두 가지로 운영된다.  
시민제안은 시민이 제안한 시책을 30일 동안 30명이 공감하면 관련부서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고 공감을 얻지 못한 시책도 반기별로 공감 여부를 물어 시민제안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여수시 제안은 시가 정책의제 설정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설문조사에서 벗어나 계획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e-시민소통광장'은 여수시 누리집 또는 여수시청 앱을 다운받아 실명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어르신 근력강화운동교실 여수시, 무릎수술 환자 대상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르신 근력강화운동교실'을 운영한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관절의 강직을 막고 손실된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활 운동 관리가 필요하다.  
운영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주 2회(화·금) 동부도시보건지소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전문 운동지도사가 실시한다. 오전반은 10시부터 11시30분, 오후반은 2시부터 3시30분까지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거동이 가능한 분들로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30일부터 2월3일까지 공화동 소재 동부도시보건지소 동부보건관리팀(061-659-4374)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어르신 근력강화운동교실' 62회 운영에 729명이 참여해 호응을 받았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오는 2월~6월까지 주 2회(화·금) 동부도시 보건지소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어르신 근력강화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오는 2월~6월까지 주 2회(화·금) 동부도시 보건지소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어르신 근력강화운동교실'을 운영한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관절의 강직을 막고 손실된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활 운동 관리가 필요하다.  
운영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주 2회(화·금) 동부도시보건지소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 전문 운동지도사가 실시한다. 오전반은 10시부터 11시30분, 오후반은 2시부터 3시30분까지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거동이 가능한 분들로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30일부터 2월3일까지 공화동 소재 동부도시보건지소 동부보건관리팀(061-659-4374)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어르신 근력강화운동교실' 62회 운영에 729명이 참여해 호응을 받았다.  
여수=이경기 기자

## 100원 택시 확대 운영 여수시, 17개 마을 운행

여수시가 교통 취약 마을 주민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100원 택시'를 2월부터 3개 마을을 추가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추가되는 마을은 소라면 성본·마륜 마을, 여천동 조은·골로현재 운행 중인 14개 마을을 포함해 모두 17개 마을에서 100원 택시가 운행된다.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이 택시를 불러 100원을 부담하면 마을회관에서 주소지 읍면동(출장소포함) 주민센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제도다.  
탑승자는 시에서 발행한 100원 택시카드와 현금 100원을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사용 횟수는 마을별 주민 수 기준으로 30~300회까지 차등 부여되며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 요금은 보조금 예산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해 준다.  
한편 2016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100원 택시는 2022년 이용자 2797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해마다 실시한 100원 택시 만족도 조사에서 97% 이상이 만족할 만큼 운행 마을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여수시 교통문화 수준, 전국 40위 → 2위 '경증'

### 국토부 교통문화지수 조사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지난해 전국 40위를 기록했던 여수시가 2위를 차지해 38단계나 뛰어올랐다.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중 2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는 100점 만점에 87.02점으로 2위를 차지하며 지난해 40위에서 38단계로 경증 뛰어올랐다.  
전국 평균 교통문화지수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의 경우 82.67점, 인구 30만 미

만 시는 80.66점, 자치구는 82.26점, 군은 78.91점이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부문, 18개 항목을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지표로 해당도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평가 결과 여수시는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등 2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전 시 방화지시등 점등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은 7위를 기록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 문화수준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의식 개선을 위해 TV 및 라디오를 통한 교통질

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하고, 녹색어머니회·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과 연계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재훈 교통과장은 "교통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겠다"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적으로는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되며 최근 3년간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이 92.84%에서 93.91%로 상승하고 규정 속도 위반 여부는 39.56%에서 35.78%, 보행자 무단 횡단 여부는 30.64%에서 29.03%로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이경기 기자

## 전기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여수시, 내달 10일까지 접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기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 신청을 2월10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신규시책으로 영농 필수장비의 농기계화를 위해 자체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전기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농산물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등록된 기종을 구입해야 하며 40만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2월1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익명의 기부천사' 성금 여수시 국동에 전달



여수시 국동(동장 김종필)은 최근 한 남성이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을 담아 게시판 옆 화단에 두었으니 좋은 일에 써 달라며 전화를 걸어왔다"며 "확인해 보니 손 편지와 함께 110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김종필 국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후원해 준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천사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농업인 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합니다

###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분류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0.1ha~0.5ha 이하 면적을 경작하고 소농요건에 적합하면 120만 원을 정액지원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최대 20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2017년~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만 신청 가능했

던 규정이 삭제돼 그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2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28일 인터넷(개별문자발송) 또는 ARS(1522-2830)로, 방문 신청은 3월1일~4월30일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

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 지급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농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확대하고 시·읍면동·농관원 합동점검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직불금 전액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제환을 한다.  
지급대상자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신청농가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7)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